

사회

■ '야속한 비' '고마운 비'...비가 물고온 생활백태

장화가게·스크린 골프장 '대박'
예식업계·일용직·노점상 '울상'

여름이면 해마다 찾아오는 잦은 비로 일상생활이 바뀌었다. 광주 지역은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41일 중 비가 내린 날은 27일로 이 기간 일수의 66%나 돼 시민생활 양태도 많이 달라졌다.

곰팡이질환·악취와의 전쟁도

◇장마에 울고 웃는 사람들=우산·장화 등 장마철 용품을 파는 업소는 '즐거움 비명'이다. 장화는 올해 긴 장마의 영향을 톡톡히 봤다. '올해의 히트 상품'으로 꼽힐 만큼 불타나게 팔리고 있는 장화는 몇과 유행까지 더해져 인기아이템으로 급부상했다.

광주 M신발가게 주인은 "하루 평균 20켤레 이상 장화가 팔리는데,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스크린 골프장은 평일에도 예약을 해야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광주 S스크린골프장 김모(42) 사장은 "이달 말까지 예약 손님이 꽉 찬 상태다. 비 때문에 필드에 나가지 못한 손님들이 스크린 골프장을 찾아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예식업계·일용직 노동자·노점상 등은 울상을 짓고 있다. 전통적으로 폭염과 장마가 긴 7월과 8월에는 예비부부들이 결혼식을 꺼리는 비수기. 5월과 10월에는 예비부부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예약을 해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난달부터는 한 달 평균 10건 접수하기도 힘들다는 게 예식장 업주들의 설명이다.

일용직 노동자들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광주시 북구 D인력사무소는 하루 평균 20명의 일용직 노동자가 일자리를 찾아 현장으로 나갔지만, 최근엔 3~4명 만이 어렵게 일감을 구하고 있다. 비 피해로 과일, 채소 출하량이 줄면서 가격까지 올라 마트와 슈퍼에서의 판매량이 폭 떨어졌다.

◇장마철 '곰팡이질환' 주의보=장마철이 되면 산발적으로 쏟아지는 비로 집안이 눅눅해지고 곰팡이가 핀다. 곰팡이들은 피부질환의 주범이다. 곰팡이 세균이 피부 상처를 통해 침입하면 각질, 피부가 검게 착색되는 '완선', 피부가 겹치거나 땀이 흐르는 곳에 일록덜룩한 반점이 생기는 '여루러기'와 같은 질환이 유발될 수 있다.

최근 '곰팡이 질환'으로 광주지역 병원을 찾는 환자 수가 평소보다 20~30% 늘었다는 게 병원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집안과 차량 곳곳에 퍼지는 '악취'=습한 장마철엔 유독 악취가 심하다. 습도가 높아 냄새가 멀리 퍼지지 못하고 지면 부근에 고이기 때문이다. 폭우에 집이나 차량의 문을 열어 환기하는 것도 어렵고 통풍이 잘 되지 않아 쿨쿨한 냄새가 난다. 그러나 악취를 없애기 위해 방향제를 마구 뿌리는 것은 좋지 않다. 악취와 방향제의 향이 섞여 또 다른 악취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대학·전문대 정원 내년 3000명 줄인다

보건의료 정원 받으려면 다른 학과 인원 추가 감축

내년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정원이 3000명 가까이 줄어든다. 국립대와 수도권 사립대 정원도 동결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4년제 대학 정원 881명, 전문대 정원 2037명 등 총 2918명을 감축하는 '2012학년도 대학 및 전문대학 정원 조정결과'를 10일 발표했다.

대학 정원은 원칙적으로 교원이나 교사 확보율 등 교육여건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 범위 안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교과부는 사후에 정원 책정기준 이행 여부를 확인해 행정 제재한다.

하지만 교과부는 올해 정원 조정에서는 보건의료 관련 학과의 정원을 배정받으려는 4년제 대학은 신청 정원의 50% 이상을 다른 학과 정원에서

줄이고 전문대학은 신청 정원의 100%를 줄이도록 유도했다.

보건의료 관련 학과는 취업률이 높고 등록금이 비싼 전통적인 인기학과로 대학의 주요 수입원이다.

교과부는 국립대 통폐합 등으로 대학 정원이 감소된 적은 있지만 대학의 자율적 정원 조정을 유도해 총정원이 줄어든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정원 자율조정 유도 결과 4년제 대학은 간호·물리치료·임상병리 등 보건의료 관련학과 정원 1130명을 배정받고 881명을 감축했고 전문대는 1018명을 배정받고 2천37명(2년제 기준)의 총정원을 줄였다. 보건의료 관련 정원을 배정받은 대학은 4년제가 38개, 전문대가 40개로 주로 지방 대학이 많다.

/연합뉴스

'안현대 입장 반대위' 구성

5월단체·민주화 기념사업회

5월 관련단체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등은 10일 안현대 전 청와대 경호실장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 '안현대 등 반민주 인사 국립묘지 안장 반대위원회'(이하 안장반대위)를 구성한 뒤 국가보훈처를 향한 방문했다.

안장반대위는 이날 국가보훈처를 방문, 안 전 경호실장 국립묘지 안장

결정에 대해 강력항의 한 뒤 안장심의와 관련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안장반대위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본 뒤 안 전 실장 안장 결정 취소 청구소송 등 법적 대응은 물론 사법처리된 반민주 인사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금지를 골자로 한 입법청원 및 서명운동을 할 계획이다.

안장반대위는 오는 15일 전국단위 결성식을 한 뒤 본격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아시아 100만 친구사귀기'

국제교류센터-시민사회단체 공동 프로젝트

(사)국제교류센터가 8·15 광복 66주년을 맞아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아시아 생명·과학·문화 네트워크를 위한 '아시아의 100만 친구 사귀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 프로젝트는 다문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고, 아시아문화전당을 건축하는 있는 시점에서의 민주·인권·평화·문화 도시인 광주가 아시아 각 국가의 지식사회와 연계해 공동의 이익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 프로젝트의 첫 행사로, 프로젝트 제안자인 조선대 강동환 교수의 저서 '아시아 르네상스를 말

하다'와 이 저서에 삽화를 그렸던 시인 칸(배희권) 화가의 작품을 한데 전시하는 특별초대전이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 1층 갤러리에서 열린다.

특히 사업 제안자로 G10 생명과학문화포럼 대표인 조선대 강동환교수는 아시아 100개 도시의 100개 대학과 연계하는 100만 친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하는 구체적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특별초대전에서 판매된 저서나 작품의 수익금은 '아시아 친구 100만 프로젝트' 추진 사업에 활용된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오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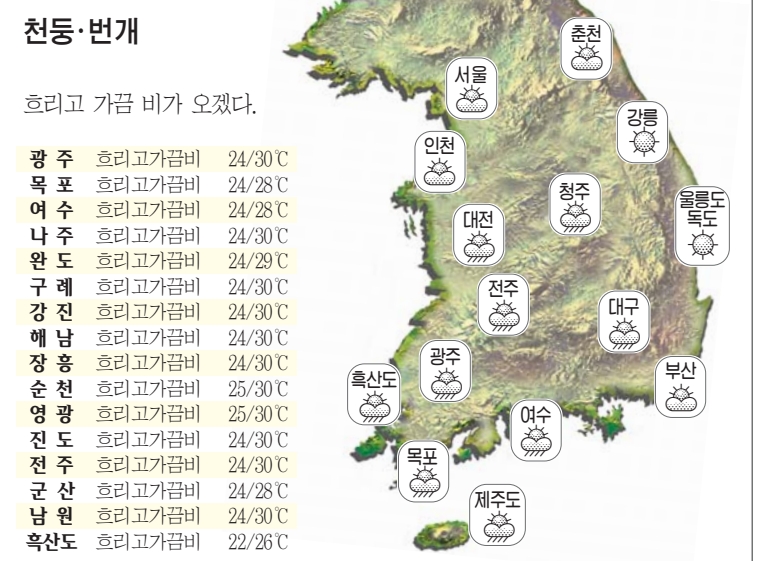


Table with weather forecasts for different regions, including temperature ranges and precipitation amounts.

Table with daily weather forecasts for the week, including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Table with sunrise and sunset times for different regions.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지긋지긋한 비, 주말까지 이어진다

광주·전남북 100mm 오는곳도 일부 지역에는 최대 100mm가 넘는 다소 많은 양의 비가 올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된다.

이런 주말까지 광주와 전남·북에는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과 전주기상대는 "오는 13일까지 광주와 전남·북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다"고 10일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11일까지 20~60mm.

이런 주말까지 광주와 전남·북에는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과 전주기상대는 "오는 13일까지 광주와 전남·북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다"고 10일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11일까지 20~60mm.

이와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는 7명으로 다음주에 등록할 것으로 보인다.

전호중 총장 후보 등록

조선대 이상열부총장 직무대행

조선대학교는 10일 전호중 총장이 제14대 총장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이상열 부총장이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총장 후보 등록은 오는 26일까지며 전 총장이 가장 먼저 등록을 마쳤다.

이와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는 7명으로 다음주에 등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는 7명으로 다음주에 등록할 것으로 보인다.

인타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지구사랑 자전거타기 녹색문화 대학연합동아리인 '소자운' 소속 회원 80명이 10일 담양군 봉산면 한도에서 자전거 국토종단을 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7일 서울을 출발, 서울·전주·담양·광주·나주·고흥까지 8박9일 일정으로 국토종단을 하면서 지구사랑 녹색환경 캠페인을 벌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Asian 100 Million Friends' project, featuring text about the project's goal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organizing center.

Large advertisement for solar power installation, titled '2011년 태양광 발전 주택보급 실시!!'. It includes details about subsidies, installation cost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a solar expert.

Advertisement for 'Pineapple' brand furniture, featuring images of various furniture pieces and text describing the brand's commitment to quality and natural materials.